

# 민주교육, 참교육 그리고 행복

-1980년대-1990년대 초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운동\*

박상은\*\*

## 〈차례〉

1.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극예술
2. 『민중교육』, 전교협, 그리고 창작춤(1987)·영화(1989)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3. 1989년 전교조 운동과 전국의 교육운동극: 노동운동과의 교차가 의미하는 것
4. 지속되는 투쟁과 이후의 참교육극
5. 나가며

##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의 교육운동과 맞물려 창작된 극들을 통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변혁기의 문화적 형식과 이 시기 떠오른 교육에 대한 질문을 추적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경쟁식 교육환경 속에서 연달아 일어났던 학생들의 자살에 관한 깊은 정서적 동요와 진정한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질문들은 한국 사회의 변혁기와 맞물려 1989년 전교조 결성이라는 굴곡점을 만들어냈다.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이 사회 문제화 되었을 때,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은 이를 개별 행위자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및 경쟁 위주의 교육 및 압축적 근대화를 겪어 내는 한국 사회구조의 문제로 사유하기 시작했다. 교육민주화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연계되었지만,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모순과 연계된 근대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되었다는 점,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하고, 각각이 교육현장의 행위자로서의 개별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852)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련의 교육운동극은 근대식 교육 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교육운동의 행위자들의 움직임에 민중문화운동의 조직들이 응하며 떠올랐다. 대학의 안과 밖에서 극·탈춤·노래·풍물 등 문화적 형식을 만들고 수행하던 문화운동 주체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집회에 대한 지원과 떠오른 사회적 의제의 창작화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극화하기 시작했다. 창작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7.12)가 1980년대 중반 활성화되었던 교육민주화운동 집회의 맥락에서, 동명의 영화가(1989)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하는 대중의 자각·청소년 관객층의 관객성·도시 중산층의 문화의 맥락 속가 창작되었다. <선생님 힘내세요>(1989), <마지막 수업>(1989), <선생님 힘내세요>(1989)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이르는 변혁운동기, 교육 현실을 바꾸는 주체로서 교사의 행위자성·교육하기라는 노동의 조건에 대한 성찰·실제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체들의 미숙성이 만들어 내는 갈등과 혼란들 그리고 교육 현장이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가에 대한 대안적 성찰과 질문이 구체화 된다. <해직일지>(1992)는 해직 이후의 시간성을 '변혁기의 형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극과 심화된 성찰성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1995)는 교육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난 이후, 여전히 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운동 이후 갈라진 삶의 길들 혹은 참교육을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이상 확정하기 어려운 시기의 머뭇거리고 환멸을 담아냈다.

이 시기 교육운동극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과 학생운동에서 파생된 반체제 민중운동의 문화적 기호들에 의해 정치적인 것이자 불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교육운동극에서 제기된 '정치적인 것'은, 공교육에서 공유해야 할 교과와 교육의 방법·학교 밖 직업적이고 문화적인 위계·개인의 역량·놀이와 공부의 본질·좋은 사회와 행복한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의 몫과 의견들의 질문과 조율 과정이라는 한국의 근대화 교육에 대한 질문과 모색에 있었다.

주제어: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교육운동극, 노동, 능력주의, 민족극운동, 불온, 참교육

## 1.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극예술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개방화와 민주화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로 기록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노동운동, 통일운동, 반공해 운동, 여성운동 등이 민족민주운동이라는 범운동 연합활동뿐 아니라 각 분과의 문제성에 대한 구체화 된 성찰과 제도 개선 방안의 고민 및 실천 속에 실질적인 투쟁과 경험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1987년 이후의 극예술을 논한다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와 신군부리는 정치적 상황 속에 움뻐있던 학생·노동·농민 운동의 연대가 1987년 6월 항쟁로 결실 맺었던 특정한 연대 ‘직후’의 시기를 역사화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특히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시퀀스의 종결이 1987년 6월이 아닌 1991년 5월 투쟁을 전후한 시기라는 점,<sup>1)</sup> 이 시기의 변혁적 대중운동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동구권 몰락과 그 이후의 1990년대 ‘환멸의 문학, 386 세대의 “상처받은 애착”,<sup>2)</sup> 그리고 1991년의 5월 혁명의 ‘실패’라는 서사적 틀에 국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개발연대기와 신군부기 통치성에 움츠려 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던 시기이자 이후의 ‘계속되는’ 운동을 위해 현재에 역참조해야 하는 시기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변혁적 대중운동기라는 맥락에서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한 매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을 전후로 한 교육민주화운동의 흐름이 극예술 운동과 조우하며 만들어낸 풍경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 특정한 연대에 교육 관련 문제를 다룬 텍스트가 떠오른 것은 먼저는 동시대 교육운동이 보여준 열기와 변혁운동에서 차지했던 대표성이 반영된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대표되는 교육 민주화 운동은 1985년 『민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시공사, 2006.

2)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0집, 민족문학사학회, 2020, 478면.

중교육』지 사건, 1986년 5월 교육민주화선언이라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사로 한다. 그리고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에 이은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가시화된 교육운동은 노동운동·통일운동과 함께 변혁기 대중운동의 중요한 한 활동이었다. 1988년 제1회 민족극한마당의 주요 주제가 ‘노동’이거나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억압되었던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기억과 연관된 공연이었던 것과 달리 1989년 하반기 제주대구·광주·안양·서울·부산 민족극운동 진영에서 학생들의 고민과 교육계의 현실에 대한 비판 및 교사의 내적·투쟁적 갈등을 담은 일련의 공연이 제작된다. 그리고 유사한 화소를 담은 극영화와 작은 영화가 작은 시차를 두고 제작되기도 했다.

교육은 주요한 이데올로기 장치인 동시에 변혁의 지평과 의지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한 영역이다. 1983년 말 유화국면 이후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 문제제기가 가시화되면서 기획된 『민중교육』이 좌경용공의 프레임 안에서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대상이 된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의 담론 통제 of 중요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에티엔 발리바르는 교육 이데올로기에 관한 글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 개발국가들에서 학교 교육의 일반화가 계급 차이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분업을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연화’함을 논했다. 그는 개발주의 국가 하에서 학교 교육이 실행과 지휘, 육체노동과 지적노동 사이의 분업을 자연화함을 강조한다.<sup>3)</sup> 1980년대 교육 민주화 운동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사운동에 대한 시민권 획득이라는 투쟁의 장면으로 환원되지 않고, 이 자연화의 규율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학교의 지배기구로서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참교육’ 혹은 ‘인간화교육’으로 명명된 대항 교육 담론 및 실천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 교육 민주화 운동의 기치는 “민족 민주인간화 교육”으로 교육계 내 폭력과 위계질서에 대한 교정·학교 비리의 근절 성

3)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얼 윌러스틴, 김상운 옮김, 『인종, 국민, 계급-모호한 정체성들』, 두번째판, 2022, 60면.

적과 물질적 척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대한 도전·교육 주체인 학생의 자주성에 대한 성찰·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동에 입각한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고민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 교사 내 자정작용으로<sup>4)</sup>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이 5공화국과 6공화국에 의해 불온한 것으로 판정되고 용공의 프레임에 의해 탄압받았듯, 교사 노동조합 운동도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노동운동=좌경, 용공의 프레임이 유사한 방식으로 전이된 것이기도 했지만, 교육 현장이 사회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영역이면서 양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대변되는 교육민주화운동은 유화국면 속에 강한 통제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교육’이라는 경쟁식 교육환경 속에 교육 주체로서 학생들의 비·행복에 대한 자각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행위자로서 교사의 ‘반성’이 가시화된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은 당국의 ‘불온생산체제’에 의해<sup>5)</sup> 제재받았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교육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초 독재정권이라는 체제의 불합리성과 발전주의 근대화 방식에 대한 민중운동의 문제 제기과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사회변혁의 단계와 방법에 대한 대학·지식인 사회의 이념논쟁과 거리가 멀었는데, 오히려 교육은 학교라는 현장이 만들어 내고 재생산할 수 있는 ‘자율화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다.

실제 교육운동은 ‘전교조운동’이라는 교사운동과 지식인(대)학생운동의 민중운동 진영 간의 단일한 연대로만 기억하기 쉽지만 운동의 이념성·목적·방향성·참여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성의 경험과 연결이 상존하기도 했다. 우선 짧은 순간이지만 불특정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은 교육의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 『다시 닫힌 교문을 열며』, 양철북, 2016, 26면.

5) ‘불온생산체제’는 임유경의 저서(『불온의 시대—1960년대 한국의 문학과 정치』(소명출판, 2017))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이철호가 서평에서 정리한 내용에 착안하여 재인용하였다.(이철호, 『불온과 통치, 그 오염된 기술』 임유경, 『불온의 시대—1960년대 한국의 문학과 정치』(소명출판, 2017)), 『상허학보』 제 51집, 상허학회, 2017, 412면.)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과 긴밀이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가 결성되기도 하였고, 전교조 탄압저지 지원 과정에서 고등학생운동이 조직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운동에 대한 동의는 학생과 교사들의 불행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학생인권·교사에 대한 처우와 교수 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 경쟁식 교육 과정과 군사주의 교육 환경에 대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 위치했다.

특히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에 영향을 받으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했던<sup>6)</sup> 고등학생운동이라 명해진 일련의 흐름은 1980년대 중후반 가시화되었던 교육운동의 가치에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고등학생운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폭언·강제·차별의 비교육적 행위와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던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심정적 지지에서 출발했지만 당국의 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투쟁과정에서 고등학생운동은 학생들의 요구를 의제화하였고, 점차 정치적 고등학생 조직운동 및 학내 민주화투쟁 교육운동으로 성격이 발전하기도 했다.<sup>7)</sup> 이들은 전교조와 수동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당시 성장했던 교사운동과 (대)학생운동의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내재화하고 재생하여 세대 간 연계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다.<sup>8)</sup> 이에 당시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고등학생운동을 공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sup>9)</sup>

이처럼 이 시기 교육운동은 지식인-(대)학생운동(민중운동)과 교사운동

6) 전누리,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 『기억과전망』 2019 겨울호,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76면.

7) 양돌규,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101면.

8) 전누리, 앞의 글, 292면.

9) 양돌규, 앞의 글, 104면.

그리고 고등학생운동이 대체로 결합하며 때로는 경합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인간인데 나는 기계가 아닌데”를 유서로 남긴 한 중학생의 죽음은 입시와 경쟁식 교육의 문제를 가시화하였는데,<sup>10)</sup> 여기에서 착상된 창작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7.12)와 동명의 영화(1989)는 그 출발점에 놓인 텍스트이다. 1989년 후반부 민족극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작·공연되었던 <선새애요>(1989), <마지막 수업>(1989), <선생님 힘내세요>(1989)은 학교 및 학생 문제를 무대화하거나 전교조 투쟁의 시간성을 반영한다. 1990년대 초반 극단 연우무대 <최선생>(1990)와 극단 여인극장 <불임의 계절>(1990)과 같이 기성연극계에서 교육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공연된 것은 교육현장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던 맥락을 보여준다. 영화운동 집단 장산곶매의 <달힌 교문을 열며>(1992)와 대구 극단 함께하는세상의 <해직일지>(1992), 교사 극단 징검다리의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1995)는 전교조 결성 이후의 지속된 투쟁과 모색의 시간성이 담긴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위의 텍스트들의 경향을 시기별 운동의 시간성 속에 고찰하고, 각 경향을 통해 대항 서사가 어떠한 담론과의 경합 혹은 반영 속에 구성되었는지 성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사례와 사건을 참조하는지, 학교 현장의 문제와 교육 주체의 권리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공연과 상연의 맥락은 어떠한지, 특정한 운동적 목적에 의해 환원론적이며 관념적인 차원으로 국한된 경우는 없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재정권의 통치성과 개발주의에 포획된 근대화에 대한 적용 속에 나타난 교육 현장의 풍경과 고민이 담긴 이 극텍스트들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문제적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강박관념」, 『경향신문』 1986.5.13.

## 2. 『민중교육』, 전교협, 그리고 창작출판(1987)·영화(1989)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9년 개봉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는 그해 여름 십대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다. 한 신문 기사는 같은 시기 개봉한 <굿모닝대통령>(1989)이 지명도가 더욱 높은 곳에서 개봉을 하였음에도 흥행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모든 청소년 영화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청소년들의 현실적 관심사”를 다루며 빈부갈등, 가난과 차별, 시험비리 등을 “우스개를 섞어가”고 “가볍게” 제시하다가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결말로 생각할 거리를 남긴 이 영화는 홍콩미국 영화에 쫓리는 관객층을 우리 영화로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긴 작품이었다.<sup>11)</sup>

영화의 제목이 된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1986년 초 한 여중생이 ‘친구H에게’ 남긴 유서의 한 대목이었다.<sup>12)</sup> 1980년대 들어 성적비관 및 압박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해마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택하였으며, 1989년 당시 전교조는 학생들의 글과 사건을 추적하면서 그 원인을 성적비관으로 분석했다.<sup>13)</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중생의 글은 경쟁적 교육 현실과 가정내 훈육의 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 학생의 삶을 선명한 대비의 언어로 담아내면서 교육의 비인간화 문제에 대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이 글은 경쟁과 공부, 대학 중심주의에 대한 강조를 자신의 내적 역동과 대비시키면서 고통을 꺾진한 언어로 담아낸다. 글에서는

11) 「청소년 영화 상영 극장 ‘희비 쌍곡선」, 『한겨레』, 1989.8.18.

12) 이 글은 각주 3에서 제시한 『다시, 닫힌 교문을 열며』에 실려 있으며, 아래 제시할 창작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 낭독된 바 있다.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새가 되어 날고 싶어요-자살학생 추모제 자료집〉, 1989.12.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최종검색일 : 2023.12.05.,  
<https://archives.kdemo.or.kr/common/gallery-view2>)

친구·꿈계절별 자연의 변화·놀이에 대한 갈망은 경쟁·딱딱한 공부·대학을 강조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자신의 삶이 로봇·인형·돌맹이와 같은 “감정이 없는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명백한 자각이 드러난다. “악의 구렁텅이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엄마”, “성적순이라는 울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은 이 학생이 자신에게 박탈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징하게 자각하고 이를 문제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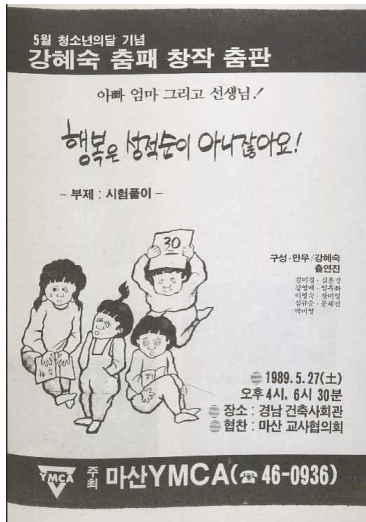
그리고 존재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것을 자신하고 바란다는 서술이 의미하는 바, 자신의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의미화되길 바라는 당사자 학생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은 “성적지상주의의 노예가 된 부모들의 과육이 자살이라는 현실도피로 몰아넣은 타살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졌다.<sup>14)</sup> 이 유서의 언어는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호소력을 지녔다. 영화가 개봉된 같은 해 현직교사 시인 정영상의 시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1989), 신인 소설가 임정진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가 발간되었다. 작가는 학생의 유서가 창작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발간되었던 이 소설은 영화의 인기와 함께 거듭 주목을 받으면서 같은 해 여름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기도 했다.<sup>15)</sup>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인 김성홍이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바를, 작가 임정진이 자신의 여고시절 체험을 각각 시나리오와 소설 창작에 반영했다고 한 것은 누구나 거쳐 가는 학교라는 공간의 문제성에 대한 사유가 동시대 서사적 집합을 가능하게 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에 앞서 동명의 공연인 1987년 공연된 청주 강혜숙출판의 창작 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부제:

14) 「강박관념」, 『경향신문』 1986.5.13.

15) 「「세계는 넓고...」종합 베스트셀러 1위 초판 15일만에 12판 13만부 찍어」, 『경향신문』, 1989.8.28.

시험풀이>가 교육운동 집회 현장에서 90회 이상 공연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어려웠던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정규 교육 과정이 교육 기구의 통제와 일률화 속에 운영되고 동시에 국가 및 자본의 통치성과 연계성 속에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이 가질 수 있는 효과와 파급력은 분명하다. 창작춤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초연이 1987년 12월 제1회 지역간연합 무용제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동명의 영화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소재제한의 벽이 완화”되고 난 후 교육문제-정치비리-이데올로기적 급기 등이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다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춤들이 우리 삶과 동떨어지거나 관념적 내용, 형식과 기능주의에 매몰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독창적 삶을 박탈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렇게 인간을 교묘하게 굴종적으로 길들여온 지배문화, 식민지 문화로서의 춤을 이 춤패는 거부한다. 민족 대화합을 지향하기 위하여 이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염원을 춤으로 담아내는 일, 그들 삶에 희망을 주고 정서적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춤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그 내용에 걸맞는 민족적 춤양식의 개발과 이론적 체계화에 관심을 갖는다.

춤의 대중화를 위해 쉽고도 구체적인 춤, 참 삶의 무기로서의 춤, 이 땅에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민족춤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sup>16)</sup>

16) 춤패편집부, 『幸福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강혜숙춤패자료집』, 1989, 4면.(한국예술디지탈 아카이브,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76105>, 최종 검색일: 2023.05.02.)

창작춤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1987년 말 초연된 이래 2년 동안 90회 이상 공연되고 8만명 이상의 관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 및 확산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즉 창작춤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창작과 유통은 영화와는 다른, 1987년 6월 혁명 이후 변혁적 대중운동의 한 갈래로서 교육민주화운동의 집회의 맥락 위에 위치했다. 실제 순회 초청공연이 이루어진 시기는 직전인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가 결성되고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일치한다. 위의 그림은 전교조 결성 직전 1989년 ‘마산 교사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연의 팸플렛 사진이다.

창작 주체로서 강혜숙 춤패의 활동 방식 및 영역은 문화운동의 집단과 맞닿아 있었다. 1980년대 초중반의 시기 ‘민족민중 문화운동의 지향과 함의’는 복합적인데, 큰 틀에서는 ①민족적 형식으로서 상정된 탈춤·풍물·민요 등 전통민속연희의 선호와 외래적 문화에 대한 종속성 및 식민주의의 경계 ②예술 및 문화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과 보통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형식의 개발과 가치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다양한 장르간의 연합체적 성격 속에 이루어진 민족민중문화운동의 인식과 형상화의 지평은 서구적 예술 형식·미학적 복잡성에 관한 극단적이고 협소한 배타성,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성찰·다양한 예술적 형식에 대한 개방적 전유 사이에서 유동했다. 춤패의 지향을 설명하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굴종적이고 지배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춤이 아닌 삶에 대한 희망과 “정서적 일체감”을 주는 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운동적 지향’이 드러났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전후한 공연 목록은 문화운동으로

17) 위의 자료집에 따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은 1987년 초연된 이래 2년 간 90여 회 공연되고 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위의 자료집, 같은 면.)

서 춤패의 운동적 지향 그리고 이와 연동되었던 미학적 형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춤패는 창단 공연으로 <다섯마당 이야기(춤으로 본 세상)>(1982, 국립극장 실험극장), 2회 공연으로 <딸의 애사>(1983, 대한민국 무용제)를 창작하는데, <딸의 애사>의 경우 농촌의 노동 동작을 형상화한 일춤, 뿌리뽑힌 농촌의 삶과 도시로 상경한 ‘딸들의 삶’을 형상화하여 보수적 무용계에 반발을 일으켰다.<sup>18)</sup> <딸의 애사>를 통해 강혜숙 춤패는 ‘시적 영역’에서 대상과 소재를 찾았던 기존 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난 ‘산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가난한 춤”이라 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동작들로도 충분히 주제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인식했다. 또 3회 공연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부터 <통일춤 한마당>(1988), <우리의 소원을 위한 한판 살풀이>, <내 사랑 한반도 통일로 꽃피워라!>(1990), <가자! 사월, 그 가슴으로>(1990)와 같이 1987년 이후 교육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변혁적 대중운동의 맥락에서 대학가와 재야단체의 집회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sup>19)</sup>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는 민주화의 열기는 역사의 필연이며 각 부문의 민주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교육부문의 민주화는 사회전체의 민주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육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의 토대이며 완성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전 민족의 노예화를 획책하던 일제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시류에 따라 부침한 정치 권력의 편의대로 길들여진 충직한 시녀로 전락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누더기 같은 헌법 속에 그나마 사문화된 채 보장받지 못했고 식민지 하에서 **구조화된 교육행정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은 온존되어 왔다.

그 결과 민족운동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던 교사들은 국민의 교사가

18) 춤패편집부, 위의 자료집, 4면.

19) 위의 자료집 참조.

아니라 극도로 통제된 관료기구의 말단으로 떨어졌고 교직은 성적이란 미명아래 **점수매김과 서열짓기에 급급한 사이비 교육의 굴레** 속에서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 당했다. 참다운 교육을 위한 **교사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자율성**은 배척되고 있다.

힘써 진리를 탐구하고 심신이 건전한,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 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비정한 점수경쟁과 물질만능적 상업주의 문화**의 홍수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다. 비민주적 교육현장은 일방적으로 선정된 **경색된 가치**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뿐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모순에 찬 사회구조와 국민의 요구를 올바르게 충족시킬 수 없는 교육체도로 말미암아 갈피잡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당면한 **과열경쟁** 속에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의 **인간적 삶을** 저당잡혔다.(강조·인용자 주)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 교사의 교육권과 시민적 권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비민주적, 관료적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 자주적 교사 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비교육적 잡무 제거, 강요된 보충수업과 심야 학습을 철폐하라.<sup>20)</sup>

그렇다면 1980년대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시화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동시대 교육운동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으며 교육문제에 관한 대항 서사의 지평을 드러내는가.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과 1987년 9월 전교협 결성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일련의 고민과 모색이<sup>21)</sup> 1985년 『민중교육』지에 관한 용공 논란을<sup>22)</sup> 거쳐 적극적인

20)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교육 민주화 선언>, 1986.5.10.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6>) (확인 일자: 2023.07.08.)

대응을 모색하고 결속력이 강화되었던 과정의 끝에 이루어졌다. 교육민주화선언문은 이 시기 교육운동 주체들의 문제의식이 집약되어있다. 선언문에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의 방관자”로서 “맹랑한 꼭두각시의 허무한 몸짓”으로서 교사의 행위자성에 대한 반성과 교육행정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의 역사적 맥락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주체로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과열된 경쟁 구도와 점수 매기기, 상업주의 문화 속에 고통을 겪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이 비판된다.

창작춤/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에서 가시화된 것은 과열된 경쟁과 점수매기기를 행복과 성공의 조건으로 ‘자연화’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이었다. 두 작품 모두 학생이 겪는 정체성 박탈 과정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지며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부모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내 몸집 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는 오늘도 집에 간다  
성한 다리를 질퍽거리며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나?  
이주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 21) 1980년대 초반은 ‘Y교협’의 활동이 가시화된 시기이며 이 시기 활동을 통해 1980년대 말의 교육운동의 기치가 논의되었다. YMCA의 우산 쓰고 창립된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역사와 교육’(1983), ‘교육과 교육권’(1984), ‘인간화 교육’(1985), ‘교육의 민주화’(1986)와 같이 해마다 교육 주제 하나 정해 연수회를 진행하며 전국 20여개 지역별 Y교협으로 성장했다.
- 22) ‘민중교육지 사건’은 1985년 창간된 무크지 《민중교육》에 글을 쓴 교사 17명이 고문·투옥·파면·강제사직 당한 사건이다. 《민중교육》은 ‘교육의 민주화’, ‘해방 후 지배 집단의 성격과 학교교육’, ‘교육 현장 그 민주적 행방’, ‘한국 교육운동의 실천적 고찰’, ‘야학 운동의 반성과 전망’과 같은 시론 성격의 글과 교육 현장에 관한 보고 글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시, 소설 작품 및 학생들의 목소리 등을 담은 무크지였다.



부들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 넣어야  
 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 넣어야  
 난 어른이 되나<sup>23)</sup>

전교협 결성 직전에 창작된 창작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가 춤과 동작의 상징성과 풍물을 활용한 배경음악 그리고 학생 글의 낭독에 기반하여 성적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면 대중 영화로 기획된 동명의 영화는 경제적 격차와 성적의 차이에 따른 교실 내 차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당대 카세트테이프·영화문화의 스타성 등 도시의 중산층 학생 문화를 재현한다. 창작출판은 ‘우리들의 하루생활·경쟁사회·현실도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춤극으로서 몸짓과 동작과 함께 극 전반의 서사적 전개와 정서를 이끌어가는 음향으로 풍물을 활용한다. 또 교과과정의 도구적 교육행태를 풍자하는 초등학생의 시와 앞선 학생의 유서에 대한 낭독과 춤 동작을 병치했다.

한편 영화는 김봉구 등 학습 낙오자들의 낙천성을 희극적 요소로 초점화하고, 이은주(이미연 역)에 대한 김봉구(김보성 역)의 애정을 희극적인 필치로 그려낸다. 서사적 확장을 통해 교실 내의 경제적 격차와 학생 간의 갈등을 현시하기도 한다. 여학생의 자살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창작출판에서 학생의 자살이 엄숙하고 성찰적인 비극성 속에 그려지는

23) 춤패편집부, 앞의 자료집, 21면.

것에 반해, 영화에서는 청춘 서사와 결부되면서 보다 감상적인 차원으로 형상화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창작축판이 교육민주화 운동의 집회성·민중민족문화운동의 맥락 속에, 영화가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통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하는 대중의 자각·청소년 관객층의 관객성·도시 중산층의 문화의 맥락 속에 생성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교육 현실을 바꾸는 주체로서 교사의 행위자성·교육하기라는 노동의 조건에 대한 성찰·실제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체들의 미숙성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혼란들 그리고 교육 현장이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가에 대한 대안적 성찰과 질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체육교사 박길호(이덕화 역)가 학생들에 대한 온정적 시선, 은주의 영구차에게 보내는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대중영화로서 교육문제의 대안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방의 임계점일 수 있다. 당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으며 성장한 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결실을 맺고, 교육 문제 및 교사들의 집단적 행동에 관한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는 1989년을 전후한 시기 나타난 일련의 교육극들은 이 남겨진 질문들을 각자의 형식으로 감당하게 된다.

### 3. 1989년 전교조 운동과 전국의 교육극: 노동운동과의 교차 가 의미하는 것

6월항쟁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면서 전국 교사들의 전교조 결성 추진 노력이 시작되었고 1989년 5월 14일 발기인 대회가 문교부의 징계 위협과 경찰의 원천봉쇄 요청 속에 치러진다. 전교협의 전교조로의 전환과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1989년 1월 당시 “의식화 교

사 및 노조 추진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되고, 문교부는 5월 1일 의식화 교사 및 노조 교사를 엄중 처리한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참교육은 위장된 민주교육”이라는 문교부 제작 홍보물이 배부되고,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이 중앙 일간지 하단에 실렸다.<sup>24)</sup> 당일에 한양대학교에서 치루어지기로 한 결성식이 오후 연세대학교로 옮겨 치루어질 만큼 교원노조 운동은 정부의 초강경 탄압을 받았다. 노동운동에 대한 편향된 용공주의 속에 “노동자로 전략한 선생님들”, “전교조 교사들은 스승이기를 포기했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지속되었다.<sup>25)</sup> 문교부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교사를 전원 해임한다는 방침을 그해 7월에 발표한다. 반년여가 지난 이후인 1990년 1월 8일 당시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교조 해직자 1519명, 구속자가 84명이었다.

같은 해 6월 17일 ‘전교조탄압저지와참교육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공대위)가 범국민 연대기구로 결성되었다. 1989년 7월 9일 이루어진 ‘전교조 탄압 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회’, 7월 25일 명동성당에서 시작한 대규모 단식 농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표명은 전교조 운동이 해당 시기 대중운동으로서 인정을 받았음을 입증한다. 전교조 교사의 해직에 항의하는 학생과 부모들의 집단행동과 조직 결성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서울·광주·부산·마산·창원 등에서 고등학교대표자 협의회를 전교조 해직교사를 지키고자 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1989년 전반기 결성되었던 전국 단위의 민주학부모회가 1989년 9월 22일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로 결실을 맺기도 한다.

전교조 결성과 그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상징되는 참교육운동이 **올 하반기 민족극의** 주요한 제재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전교조가 결성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 앞의 책의 2장 「풍랑을 헤치고」 참조.

25) 위의 책.

된지 두 달만인 7월 30일 제주의 광양성당에서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선생님 힘내세요>가 공연.

교육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율하반기에 만들어진 연극은 한라산의 <선생님 힘내세요> 외에 목포 문화패 ‘갯돌의 노래극 <선생님 힘내세요>와 마당극 <새날이 올 때까지>, 대구 놀이패 ‘탈의 <선새얌요>, 부산 극단 ‘새벽의 <수우미양가>, 부산 교사놀이패 ‘추암의 <다시 일어서는 학교>, 청주 놀이패 ‘열림타의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광주 놀이패 ‘신명의 <학교야 학교야>, 안양극단 ‘큰함의 <선생님 힘내세요> 그리고 극단 ‘한강의 <마지막 수업>이다. (중략) 이 연극들은 대개가 마당극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극장 무대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교조 집회때나 대학교 구내에서 공연되는 것이 특징이다.<sup>26)</sup>

1988년 발족한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는 전국의 민중 민족문화운동 진영 연극단체로 구성되었으며 1988년 3월 제1회, 1989년 3월 제2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을 개최하였다.<sup>27)</sup> 민족극운동협의회 소속 극단들은 운동으로서의 지향을 공유하며 ‘마당극 집단으로 통칭되었는데 탈춤 및 민속 연극·연극을 중심으로 한 극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민족극운동협의회 소속 극단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노동·농민·통일운동 등 급변했던 변혁적 대중운동의 현안과 쟁점을 창작의 과정에 적용하고자 했다. 제 1회 민족극한마당에서는 5.18광주민주화항쟁·제주 4.3, 형제복지원 사건 등 6월항쟁 이전 독재정권 치하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학살과 인권유린의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 2회 민족극한마당에서는 노동자·농민을 대상으로 한 연극과 반미·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sup>28)</sup> 또 제1회부터 ‘극단 현장’, ‘극단 한강과 같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26) 「‘참교육 극화’ 민족극 발돋움」, 『한겨레』, 1989.11.17.

27) 제1회 민족극한마당, 1988년 3월 3일-4월 30일, 서울 미리내 소극장 개최.; 제2회 민족극한마당, 1989년 3월 7일-11일 전국 16개 단체 참가, 서울예술극장한마당, 연우 소극장 개최.

28) 민족극연구회 대본선편집위원회, 「『민족극 대본선 4』를 펴내면서」, 민족극연구회 역

이후 가열되었던 노동운동에 개입하는 차원에서 노동연극을 창작 및 보급에 주력하는 극단들이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다.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이후 같은 해 후반기에 교육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전국 단위에서 창작된다. 이는 시기별 운동의 현안을 창작에 반영하고자 민족극운동의 지향과 맞닿아 있었다.<sup>29)</sup>

1989년 교육운동 관련 연극들은 앞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도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로서의 지를 다지는 교사 인물을 형상화하고, 학교 내 참교사와 비인간적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비하거나, 배경과 전망으로서 전교조 투쟁의 전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당대의 노동연극 활동을 지향한 극단 한강과 안양문화운동연합 큰힘의 경우 교육극과 노동극이 교차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역대 독재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 **가혹한 입시경쟁 교육**에 찌든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받았다.(중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난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강조·인용자 주)<sup>30)</sup>

음, 『민족극 대본선4: 제 1·2회 민족극한마당 편』, 풀빛, 1991.

29) 1989년 하반기 창작·공연된 교육운동 관련 극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와 함께 정채철이 발표한 평론 참조(『경제철(『교육운동과 연극운동-89년 하반기 교육문제극들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제67호, 창작과비평사, 1990 봄).

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선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대회 자료집』, 6면.

위의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지향했고 앞선 전교협의 ‘민주교육’의 가치를 ‘참교육’으로 계승했다. 초기 전교조 운동이 교직원이라는 특정 집단의 지위 향상과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민주교육’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실렸음은 주지하는 바다.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 학생의 성장에 대한 고려는 강령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닌 각 학교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 구체화 되었다. 전교조는 행정 업무의 관료화와 교권 내 위계질서의 문제뿐 아니라 체벌·학생 간 계급 격차에 따른 불평등·직업에 관한 편견·과도한 경쟁·성적 우선주의·지식습득의 맹목성과 형식주의를 문제화하였다.

(적은 인원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우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학생과장은 채용 아버지, 카페의 주인, 유창한 DJ, 만화방 주인, 경찰 역할을 함께 맡을 수 있으며, 채용 엄마는 순희, 차선도, 윤리 선생을 함께 맡을 수 있고, 민선생은 미정과 사회자를 최선생은 잡상인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무대는 기본적으로 사실적일 필요가 없다.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장면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제시하면 되며, 각 장면의 번호 다음에 극중 배경이 지시되어 있다. 이 극은 관객의 적극적인 비판과 개입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열린 극형식을 취한다.<sup>31)</sup>

사회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 유창한 박사님께서 한 말씀.

1989.5.28.(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521885>, 확인 일자: 2023.10.13.)

31) 〈서서 잠드는 아이들〉, 37면.

- 유창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청소년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니 정서가 메마르고, 정서가 메마르니 토지가 나빠지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잘 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싹이 잘 돋아 나느냐? (흥분하며) 우선 좋은 종자를 골라 물에 2-3일 폭 담근 다음에 뿌리되 땅을 깊게 갈아야 합니다.
- 사회자      네에? 무슨 말씀이신지.....
- 유창한      (놀라서) 아이구 이거, 조금 전에 새마을 강연회에서 말했던 것이 그만... 하여튼 요즘 청소년들 책을 안 읽어요.
- 차영숙      저도 유박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책 안 읽습니다.<sup>32)</sup>

전교조 설립 직전 해에 대구 극단 시인에 의해 창작되고 공연된 <서서 잠드는 아이들>은<sup>33)</sup> 우등생인 재용과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 정배라는 유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극이다. 재용과 정배는 친구 관계인데, 교내 상징물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당하게 된다. “똑똑한 녀석 몇만 건지면”(43면) 된다는 학생과장의 판단하에 정배만 정확 처분을 받게 되고, 그 후 정배가 비행 청소년의 삶과 접촉하게 된다는 설정이다. <서서 잠드는 아이들>은 성적과 부모의 계급 차에 따른 낙인과 배제의 매커니즘을 문제 삼고 있으며 교사 간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태도와 관점의 차를 상론한다. 공연을 만든 ‘극단 시인’의 경우 교육 문제를 3부작으

32) <서서 잠드는 아이들>, 57면.

33) <서서 잠드는 아이들>의 대본은 『영남의 민족극: 1980-1989』(정치창·김사열 편, 우리, 1989)와 『이땅은 니캉내캉』(태학사, 1996)에 동일한 판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서 잠드는 아이들>은 1988년 9월 대구가톨릭 근로자회관, 10월 포항문화원 강당, 12월 부산대 문학회관 및 마산 경남대 한마음회관, 1989년 2월 계명대 시청각교육관에서 공연되었다. 자세한 공연 연보는 대구지역의 민족극 선집인 『이땅은 니캉내캉』(태학사, 1996) 36면 참조.

로 만들 기획 속에 앞서 <전천후 선생님>에서 한 교장의 모습을 통해 “주체적이지 못한 교육의 역사”를<sup>34)</sup> 담아내 공연했다.

후속작인 <서서 잠드는 아이들>의 경우 극중 채용-정배와 유사한 연령의 학생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그들의 특징 있는 언어와 동작을 사용하여 동질감을 확보”할 것을<sup>35)</sup> 고려하여 연출되었다. 극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일구어 나가지 못하는 원인을 학생 집단의 문제로 돌리는 전문가집단과 질문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조시킨다. 위의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연극적 장치, 역할 유형화에 근간한 일인 다역-적은 소도구를 통한 연기의 기동성 고려-토론하기를 고려한 결말 구성-TV쇼 삽입극 전자음향은 1980년대 마당극 “판의 개방성”을 고려한 극작술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청소년 독서 연맹 이사이시자 청소년 골프회 회장님이고 새마을 육성회 고문”인 “유창한 박사”의 역을 맡은 배우가 학생과장, 경찰 등의 역을 함께 맡도록 의도하여 학생 집단과 적대하는 집단을 유형화하여 인식하도록 의도했다. 채용과 정배가 겪게 되는 사건의 조작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공연은 “학생 관객들의 열기와 함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기록되었다.<sup>36)</sup>

<서서 잠드는 아이들>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역량을 고민하는 교사인 ‘최선생’의 입장은 “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보다는 귀하지 않을 겁니다.”(42면)와 같은 대사의 편린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전교조 결성 직전에 공연된 <서서 잠드는 아이들>은 교사 입장에서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이후 대중운동으로 확산되던 교원 민주화 운동의 반영이자 지원의 일환으로 제작된 극들은 교사의 투쟁 과정을 보다 가시화한다.

34) 김재석, 「대구지역 민족극운동: 1983-1994」, 김재석 최재우 엮음, 『대구지역 민족극 선집-이땅은 니강내강』, 태학사, 1996, 389면.

35) 김재석, 「〈서서 잠드는 아이들〉 연출노트」, 위의 책, 423면.

36) 김재석, 앞의 글, 389면.

1989년 후반부에 만들어진 이 극들은 전교조 투쟁의 당위성과 전교조 가입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야 하는 교사의 투쟁을 주로 했다는 점에서 “전교조연극”으로<sup>37)</sup> 명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극들은 전교조 운동 자체를 담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운동이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급진적인 질문과 상상들을 담아내고 있다. 교육 현실을 바꾸는 주체로서 교사의 행위자성과 교육하기라는 노동의 조건에 대한 성찰, 방관자의 입장에 대한 비판 및 교육 현장이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것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극은 대구 놀이패 탈의 <선애애크>,<sup>38)</sup> 안양문화운동연합 큰힘의 <선생님 힘내세요>,<sup>39)</sup> 서울 극단 한강의 <마지막 수업>이다.<sup>40)</sup> 세 작품은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가시화하는 한편 교사의 전교조 참여 과정의 진통 혹은 참여함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부당한 조건들을 담아내고 지속적인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선애애크>의 경우 퀴즈쇼를 통해 관객들을 방청객으로 상징하며 시

37) 이영미, 「참교육의 그날 까지—연우무대, 〈최선생〉 공연평」, 『민족예술』 제4호, 1990, 13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예술 합본호—민족예술 1988-1992』, 한울, 1993, 111면. 참조)

38) ‘놀이패 탈’은 대구 경북대학교 민속문화연구회(탈춤반)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조직으로 1983년 12월 결성되었으며 연극 공연·풍물·미술을 아우르는 ‘연행’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내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1984), <통일의 북춤>, 풍물 및 춤판 <모듬놀이>와 전통 탈춤 복원 등의 활동을 개진했다. 1988년 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민족극운동 협의회가 결성되기에 앞선 1988년 9월 부산과 대구 경남권의 극단들이 영남지역 마당굿운동 협의회를 결성할 때 참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김재석, 앞의 글 및 『영남의 민족극』(정지창·김사열 엮음, 도서출판 우리, 1989)의 후반에 실린 「영남지방의 전문연희패」를 참조할 것.

39) 안양 극단 큰힘, <선생님 힘내세요>, 엄인희, 『엄인희 작품 모음 1-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북스토리, 2002) 수록본.

40) 극단 한강은 노동연극 극단을 표방하며 <대결>(1988)로 창단 공연을 한 후,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운동을 그려낸 2인극 <푸른 옷의 사람들>(1989), 파업 투쟁을 그린 <동팔이의 꿈>(1989)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고, 1990년대에는 연극교실을 운영하고 <교실 이데아> 시리즈와 같은 교육 제재 연극을 만들며 활동을 이어갔다. 공연 대본은 아르코예술기록원 자료실에 보관 중인 <마지막 수업>(극단 한강, 1989)을 참조한다.

작한다. 1988년 이어졌던 대구 영남 지역 학생들의 자살 사건들에 대한 토론회로 판을 열고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후, “남보다는 자기를, 진리보다는 실리를, 실리 위주의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라 답한다.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네 개의 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무당의 원혼제가 이어진다. 이후 상명하달식의 업무에 시달리거나 학교 간 성적 경쟁을 가시화하는 한편 교사 간 위계가 남아 있는 교무실의 풍경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학습 내용과 교사의 노동환경 및 경쟁식 교육에서 학생의 위치 및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장면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한 학교 및 당국의 핍박과 교사의 내적 갈등 및 전교조 결사의 실질적인 연대의 과정을 보여준다.

남아 있는 공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극은 몇 개의 상자를 관의자교탁 등으로 활용하여 교실·교무실·거리·학생 집 등의 배경을 놀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탈춤과 무궁토론극슬라이드인형극공물의 음향 효과 등을 양식적 특징으로 했다. 극은 이 양식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예의 ‘민중적 시각’에 대한 강조나 교육 운동에로의 헌신을 규범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교사·학생으로 이루어진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질문들을 두텁게 보여준다. 예컨대 주입식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 현장을 비장함 속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풍자 혹은 놀이적 분위기 속에 형상화한다. 또 토론극 형식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수용소”로서의 학교에 대한 발언과 “그들 외카노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가면 되잖아. 그라고 가난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면 사회에서 대접받고 있잖아. 안글나?”와 같은 오늘의 교육 현실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상이한 입장 차이를 발화시키기도 한다. 전교조 사수를 위한 교사들의 단식 농성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거나, 깃발춤을 통해 연대와 투쟁·좌절과 재기의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 극 안에서 다양한 의미의 재현체로 활용되었던

나무 상자를 앞에 전교조 상징을 붙여 쌓아 올린 형상으로 활용되는 것, <전교조 투쟁가>로 극을 마무리하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운동의 시간성을 직접적으로 공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극단 한강의 <마지막 수업>과 극단 새힘의 <선생님 힘내세요>는 “노동의 신성함과 고귀함”을 평등에의 요구와 사회 변혁의 열쇠로 여긴 동시대 노동운동을 향한 정동이 반영된 텍스트이다. 두 텍스트 모두 학생·노동자상이 등장하며 ‘단지’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변혁운동에서 ‘노동자’ 표상이 상징하는 바, 경쟁주의적 삶·경제적 불평등·계급적대역에서 오는 모멸감·노동에서의 인간 소외 등을 반성하는 유토피아적 상상의 중층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마지막 수업>이 이상화된 노동자·학생의 모습을 경쟁적이며 비인간적인 교실의 현실과 대비하며 교사의 교육운동으로의 결단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선생님 힘내세요>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이면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인물들이 접하게 되는 불평등한 처사와 직업적 위계와 실질적 모멸감 및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가 겪어야 하는 외적 내적 갈등을 짚진하게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모든 물질적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오로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 교육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더욱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류역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모든 인류의 보편적 염원인 자유와 평등의 세상 또한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시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허구적 경쟁에 지친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허구적 이데올로기교육에 환멸을 느끼고 방향하는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의지박약이나 부도덕한 현사회환경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결국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원래 교육이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충돌의 결과가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속임수 선전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현재 모든 교육의 권한과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허구성과** 학생들 스스로가 현사회의 물질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간의 첨예한 갈등의 결과인 것이다.

입시는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허구적 교육의 총결산판이다! 노동의 신성함과 평등과 복지를 외치면서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를 통하여 권력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영합하는 부류를 형성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낙오한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sup>41)</sup>

극단 한강의 <마지막 수업>은 단순하게 학생·교사의 권익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던 ‘진교사’가 몇 가지 계기로 전교조의 분회결성식에 참여하게 되며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대 교육민주화운동을 위한 연극이면서 ‘노동연극과 교차’되었던 <마지막 수업>은 “현 사회제도의 영향하에 있는 학교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 있는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라는<sup>42)</sup> 계급주의적 관점에 초점화되었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연출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극은 현재의 교육 문제가 단순하게 학생 개인의 문제나 사회적 부도덕의 차원이 아닌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모든 교육의 권한과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명백한 적대의 표현은 이와 같은 현실의 모순을 변혁할 집단으로서 이상적인 노동자상과 연결된다.

41) 박제홍, 「연출의 말-“전직교사의 참회록”」, <<마지막 수업> 공연 팸플렛, 1989.11.17-12.10, 신선소극장 공연.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16210>)

(확인일자: 2023.09.13.)

42) 위의 글, 같은 면.

실제 진선생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노동자·학생인 호성이다. 집안은 불우해도 공부를 잘하는 호성이 “나중에 전 더러운 경쟁에서 나오히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경쟁을 없애는 공부를 할거예요”라며 학교를 그만두는 것, ‘건강함’이라고 표현되었던, 노동조합투쟁의 지난함과 격함을 상쇄시키는 연대의 흥분과 만족감을 논하는 푸른 옷을 입은 호성의 형은 이 극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계급 적대의 인식과 노동하는 자에 대한 이상화는 먼저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 이루어진 노동자대투쟁이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반영이었다. 물론 환원론적 계급 적대는 교육에 개입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위성과 욕망의 경합을 담아내지 못한다. ‘푸른 옷을 입은 노동자’에 대한 이상화, 제조업의 노동자에게 초점화된 변혁적 의지와 이상은 (대)학생 운동·노동운동의 연대에서 공유되었던 규범적 노동운동의 문화적 형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수업>은 교실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형제/아들을 매개로 구조화된 직업적 편견·맹목화된 경쟁주의적 삶의 환경에서 탈피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며 평등에의 요구를 통해 해방의 감각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 선영 언니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못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 미스최 그래 알아. 나도 이런 수모 받으며 6년째야. 저 앞에 있는 일류대 출신의 사장 조카 말야.
- 선영 김선희씨요?
- 미스최 응 개는 꼭 씨자 부르고 나는 맨날 미스 최야. 월급날 화가 나서 못 먹는 소주만 병째 마시고 펑펑 울었지.
- 선영 울었어요, 언니두?
- 미스최 미스 최는 월급 26만원, 김선희씨는 32만원. 과장이 뭐라는 줄 아니? 빨리 시집가래. 노처녀 되면 누가 좋아하나구.

- 현대 김선희씨한테는 뭐라는 줄 아니?
- 선영 저도 들었어요. 아까운 능력 결혼해서 썩히지 말고 계속 직장 다니라고요.
- 미스최 (과이트 치는 시늉) 이걸 하루종일 툭툭 치면서 내 눈물이, 내 설움이 툭툭 튀겨져서 서류 속으로 꼬나 박히는 걸 매일 본다 선영아.
- 선영 언니 나 학교생활 11년 만에 처음 존경하는 선생님이 생겼거든요. 그분 앞에서 큰소리 땡땡 치고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요. 학교보다 더 사람대접을 못 받아요. 정말 싫어.
- 미스최 그렇다고 졸업 안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학교에 있을래?
- 선영 학교는 감옥이에요. 공장은 자기가 맡은 일이 따로따로 있거나 하지. 정말 이런 심부름이나 하는 생활은 싫어.(335면.)
- 박선생 선생님! 인문계 애들한테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갈 길이나 제시할 수 있죠. 저는요,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든 고졸 사무직으로 취직해라. 그래야 나중이라도 야간 대학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공순이 밖에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소위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런 말 밖에는 할 수 없어요?
- 주임 뭐가 어때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못나고 못 배우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정부가 해결할 일을 왜 선생이 고민합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가르치면 되잖습니까? 다만 월급만 다르게 받는다고요.
- 박선생 선생님 결국 노동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 주임 이 사람이(아래위로 훑어보며) 이제 봤더니 순빨갱이 아냐, 누굴 의식화시키려고 그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주임 퇴장, 박선생도 함께 퇴장.

체육선생은 누장을 부리는 아이들을 기합을 주면서 돼지 몰 듯이 몰고 퇴장.(강조·인용자 주)<sup>43)</sup>

진교사에게 변화의 동기와 자각을 제공하는 것이 남성 노동자였으며 그는 변혁을 상상하게 하고 실천하는 흔들리지 않는 주체로 형상화된다.<sup>44)</sup> <마지막 수업>과 비교할 때, 안양문화운동연합 새힘의 <선생님 힘내세요>는 노동해방과 참교육을 실현이 이상적으로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여성·학생·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현실을 꺾진하게 제시한다. 또 기업으로 실습을 나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자는 앞선 전교조 연극이 학교와 교실 내의 문제에 초점화했던 것, 풍자와 인물 유형화의 양식적 특성을 보였던 것과 차별된다.

<선생님 힘내세요>는 노동자인 아버지와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를 가정환경 조사서에 사실대로 기록한 선영에 대한 교사의 질책으로 시작한다. 이 극에서 대학에 갈 학생을 중심으로 짜여진 “거짓과 위선에 찬 연구 수업”, 이후에 실업계 학생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의 경험을 하게 하려는 ‘박선생의 노력, 문집발간과 같은 교과과정 외적인 참교육의 실천들은 앞선 교육 운동극과 연속되는 특성이다. <선생님 힘내세요>가 당대 사실성의 지평에서 나아가는 지점은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차별이 중첩된 현실을 그린 지점이다. 선영의 지도교사는 깨끗한 사무실과 공돌이 공순이의 대비하면서 대기업 실습생 추천의뢰서를 보여주며 선영을 회유한다. 또

43) 엄인희, <선생님 힘내세요>, 엄인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 북스토리, 2002, 339면.

44) 민주노조가 정치양식으로서 기능하던 시기를 1970-1987년까지의 민주노조 운동기와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 체제를 분절하고 시효소멸된 민주노조의 정치양식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족주의·가상으로서의 파업·엘리트주의·남성 가부장주의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김원·신병현·심성보·이황현·아이희랑, 천권의 책, 2008.)의 논의를 참조할 것.

학교 내에서 실업계 학생 및 ‘여’ 학생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신체규율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 두드러진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습생으로서 선영은 여성·학생·노동자가 학교와 직장 모두에서 호칭·임금·처우의 차원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박교사와의 언쟁에서 주임의 발언은 교육에 관해 자연화되어 있는 능력주의의 심급을 명시한다. 황병주가 한국에서 능력주의의 문제를 개발연대기 자본주의의 “맹목과 저돌성”이<sup>45)</sup> 생산성·노동분업·기업 운영·통치성·교육 및 지능 담론 등에서 발현된 사례를 통해 서술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본주의 근대의 자유·평등·무한경쟁 시장은 능력주의가 번성할 최적의 조건이다.<sup>46)</sup> 교육은 기업의 운영·공론장과 함께 능력주의를 가치이자 관습·제도적 실천으로서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선생님 힘내세요>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못 배우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주임의 언급은 자본주의 근대를 지탱하는 이념적 토대인 자유와 평등이 능력별 위계 서열의 내면화와 모순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적시한다. 거기에 더해 ‘노동자’라는 언표는 “순빨갱이”, “의식화”라는 불온의 언어로 손쉽게 판단 받았다. 박선생이 지향하고자 하는, ‘노동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은 직업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의 언어 혹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대항의 언어이기도 했지만,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바깥에서 직접 마주하고 살아가는 삶과의 연속성에 시선을 확장한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언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때 제기된 질문은 지속되어야 했지만 강력한 불온의 생산체제와 개별 행위자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 욕망의 심급 앞에서 가로막혔던 것은 아닐까.

## L 사랑 자유 노동

노동은 힘들다. 하지만 그래서 가치있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45) 황병주, 「개발연대와 능력주의」,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2022 가을, 90면.

46) 위의 글, 71면.

노동이 없으면 사랑과 자유도  
 노동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왜 노동을 천시할까.<sup>47)</sup>

독립영화 집단 장산곶매가 제작한 영화 <달린 교문을 열며>(1992)는 1989년의 쟁점화된 교육운동에서 시차를 두고 있지만 노동운동과 교육운동의 교차를 보여준다는 점, 각성한 교사에 연대하는 학생 집단의 모습을 극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말의 교육운동극의 인식의 지평을 이어 받은 문화적 재현물로 볼 수 있다. 영화는 인문계 고등학교 내 취업반 학생들의 서사를 담고 있다. 앞서 극단 새힘의 <선생님 힘내세요>가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동하는 학생들이 겪는 모욕과 열패감을 다룬다. 이 영화에서도 남자 교사 송대진, 여자 교사 이해정은 각기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 공부하는 학생과 일하는 학생 사이에 학교가 갈라 놓은 내부의 위계를 넘어선 ‘참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로 그려진다. 취업계 학생들은 “별써부터 공돌이 공순이 티 내고 있어.”라는 언어적 차별 속에 살아간다.

송대진과 이해정의 교육은 육체노동과 교육열로 표상된 정신노동 사이의 자연화된 격차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대진은 영어 수업에서 좁게는 학교 내,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천대’의 언어로 받아들여진 ‘노동 Labor’을 인간이 삶에서 귀하다 여기는 요소인 사랑 Love과 자유 Liberty라는 말과 동급에 놓고 사유할 것을 유도한다. 이때의 노동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행할 것으로 전제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다. 이해정은 학생들에게 “기쁜 날 슬픈 날 그래프”를 만들게 하여 “푸른 세상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색을 가장 좋아한다 답한다. 이해정이 이끌어가는 교지편집부에서 학생들은 ‘선배 인터뷰’로 “분위기가 자신감 있는” 서울대로 진학한 선배 인터뷰가 자

47) <달린 교문을 열며> 심의대본 시나리오, 1992, 한국영상자료원 소장본.

연스럽게 채택되는 것을 의문시하며 ‘공장 선배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연극 <마지막 수업>에서 제시되었던 푸른 옷을 입은 노동자의 표상은 영화 <달힌 교문을 열며>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의 포스터와 1991년 강경대 장례 투쟁의 기록 영상들, <사랑도 명예도 빛도 없이>와 같은 투쟁가들을 통해 서사적으로 확장되었다. 1992년 제작 당시 당국은 “현상소, 녹음실 등 관계 업체에 계약 취소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제작에 탄압을 가하였고, 상연에는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가했다.<sup>48)</sup> 사전제작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제재는 영화운동가 협의회 ‘장산꽃매’의 영화 <오! 꿈의 나라>(1989)와 <파업전야>(1990)의 영화법 위반 판정과 그로 인한 법적 제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녹음과 보정이 되지 않아 같은 해 3월 6일과 7일 한양대학교 대강당에서 무성영화의 상영 방식을 활용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sup>49)</sup>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전교조 보급으로 대학가에 순회상영 되었다. 같은 해 7월 충북 옥천군 소재 천주교회 강당에서 상영 예정되었는데, 당일엔 학생들에게 돌린 영화 홍보 전단지만 문제시되어 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sup>50)</sup>

이반 일리치는 학교 교육이 산업주의가 낳은 하나의 관념임을 지적하면서 교육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배움이 몰락하고 “잘못된 교육”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증했다.<sup>51)</sup> 일리치의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의 중등 진로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 글은 ‘시장 의존적’이고 ‘직업 중심적 교육’이 자율적이고 창조적 일에 대한 접근을 박탈하며 커먼과 공생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와 학습자 주도의 자기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의 문제를 제기한다.<sup>52)</sup>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의

48) 장산꽃매 16mm영화 ‘달힌 교문을 열며’문화부 봉쇄로 제작 중단, 『한겨레』, 1992.2.18.

49) 「‘달힌 교문을 열며’ 영사회」, 『한겨레』, 1992.3.6.

50) 「‘달힌 교문’...영화 탄압 유감」, 『한겨레』, 1992.7.19.

51) 이반 일리치, 노승영 옮김, 『그림자노동』, 사월의책, 2015.

제도성에 대한 이반 일리치의 비판은 과히 '이상적인 것으로 위치 지어진다. 그럼에도 더욱 가혹해진 경쟁식 교육과 교육 불평등, 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집단적이고 성찰적인 합의를 논하는 것이 무색해진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시대에 1980년대 중반 시작되어 1989년을 전후로 집결된 목소리로 등장했던 교육운동과, 이에 연대한 교육운동극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때 질문은 전교조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행위자들이 자살·배제와 차별·폭력에 높은 감수성으로 응답하며 문제를 개별적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의 독재적 통치성과 불온의 생산체계·능력주의의 내면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기원을 추적하며 교육의 쓰임과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책임감 있는 역동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89년 당시 가시화되었던 전교조 운동은 교육 현장의 행위자로서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성찰하며 경쟁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참교육'이 가능하다면, 그 교과와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 것일지, 그리고 학교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건이었다. 이 전교조연극은 1989년 당시의 전교조 결성 과정을 극화하여 참여의 당위성과 투쟁의 현황을 극화했다. 또 기존의 경쟁주의적 삶과 시험 편향적 교과 과정, 교육계의 위계질서와 비합리적 관행들에 질문을 던졌다. 동시기 민중운동에서 가장 집중된 분야로서 노동운동과 접합됨으로써 노동운동에서 제기되었던 평등에의 요구가 학교 내에 가혹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본과 직업에 따른 위계와 차별에 대한 성찰로 계승되었다.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자발성과 적극성이 아닌 '다른 주권 의식', 자본의 욕망이 아닌 '다른 욕망',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대한 일방적 차별이 아닌 '분업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상상을 반영하기도 했다.

52) 김민재·김영환, 「Ivan Illich의 핵심사상에 기반한 중등 진로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7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 4. 지속되는 투쟁과 이후의 참교육극

앞 장에서 살펴본 전교조연극은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과 이후 정권의 용공 조작과 핍박 속에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당하는 상황 속에서 문화운동집단의 창작 의도 속에서 제작 공연되었다. 이후의 교육운동은 ‘교육대투쟁’이라는 의제 하에 합법화투쟁과 해직교사의 원상복직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53)</sup> 앞서 살펴본 <선생님 힘내세요>는 전교조 집회에 참여하는 중 박선생이 감찰을 나온 교감과 교장에게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며, 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전경의 제압 속에서도 전교조 집회에 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 모이고 교문 앞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해직교사의 상은 이후 지속되는 교육운동 극에도 반영된다.

전교조와 해직교사와 관련한 의제는 대중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기도 했는데,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제도권 연극계와 영화운동의 영역에서, 교사극단과 교육문제극의 차원에서 교육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재연된 바 있다. 전교조 결성 후 한 해 지난 후, 1990년에 극단 연우무대와 극단 여인극장에 의해 <최선생>과 <불임의 계절>이 각각 공연된다. 이 두 작품이 1989년도의 교원노조 운동의 상황과 인식의 지평을 반영한 것이라면 대구·영남 지역의 민족극운동의 계열에서 창작 공연한 <해직일지(아저씨, 어 선생임예!)>(1992)는 1994년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귀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간성이 반영된 텍스트이다.

“교육현실을 다룬” 극단 연우무대의 <최선생>과<sup>54)</sup> 극단 여인극장의

53)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시작이 해직 교사들의 복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1992년 5월초부터 현직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을 전개하여 102만 3,426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54) 극단 연우무대 공동창작, <최선생>, 1990, 아르코예술기록원 소장본.

<불임의 계절>은<sup>55)</sup> 1990년 9월 유사한 시기에 무대에 오르면서 기사화된 바 있다. 민중문화운동과 제도권 연극의 접경에 위치한 극단 연우무대가 극화한 <최선생>은 1989년 전교조 출범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신방학초등학교 최중순 교사의 교육 사례가 언론 및 정부 당국에 의해 용공 논란 속에 매도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한편 <불임의 계절>을 공연한 극단 여인극장은 민족극운동과 관계가 없는 기성 연극계의 극단이었다. <불임의 계절>은 학생의 행실에 대한 학교 및 교육 집단의 “질서정연”한(171면) 판단과 규정이 진실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불임의 계절>은 교육운동극으로 명명하기는 힘들지만, 1980년대 중후반의 교육민주화운동이 던진 질문이 대중에게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즉 이들이 연극을 통해 “우리들의 교육이 진정 참된 삶을 배우고 인간적인 가치를 함양하는 실천의 현장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sup>56)</sup> 질문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후반의 교육 민주화 운동의 여론화와 관계된 것이었다. 극은 두 학생이 주변의 오해로 청소년 정화위원회에 소환된 후 이들을 옹호하는 ‘유영석 교사의 분투’ 속에도 끝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은 청소년 정화위원회·교칙·학생징계회의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의 전형적인 비학생중심성과 관료성을 보여주면서 집단의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논리 하에 ‘희생’되는 학생들을 형상화한다. 실질적인 극적 갈등은 아이들 편에서 있는 ‘유영석 교사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편안하고, 유능한 교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148면) 길들여진 채로 살아간다는 ‘윤리주입’ 외 대부분의 교사 간의 학생 처벌에 관한 입장 차이에 있다. <불임의 계절>은 학교 교육의 관료성과 권위주의의 현실적 모습을 문제 삼고, 가난

55) 배봉기, 『배봉기 희곡집-잔인한 계절』(평민사, 1995.) 수록본.

56) <불임의 계절> 팸플렛, <https://www.daarts.or.kr/viewer/document/1156492#>  
(확인 일시: 2023.10.15.)

으로 인해 유년 시절 누명을 쓰게 되었던 유교사의 전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차별과 인정의 문제를 반영한다. 이 점에서 1985년 청소년 관객을 위한 연극을 표방하며 흥행을 했던 동량청소년극단의 <방황하는 별들>(1985)의 재현에서<sup>57)</sup> 한 걸음 나아간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후 유교사가 무단조퇴하고, 학생이 무고하게 죽었음에도 아무 일 없는 듯 “질서정연하게 등장하여 양쪽으로 도열”하는 교사들의 그로테스크한 교무회의 장면의 결말은(171면) 교육현실뿐 아니라 제도적 일방성의 확고부동함을 알레고리화 하면서도 다른 교과 수업 방식과 교사 간 학생 간 연대를 통해 변혁의 꿈을 꾸었던 동시대 교육운동극의 전망에 비해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조명은 기본적으로 밝다. 조명의 표현적 효과는 가능한 한 배제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현실의 교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명은 기능적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고 환상적, 표현주의적 조명은 사용하지 않는다.<sup>58)</sup>

최선생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 공부를 시작한다. 이 때 관객도 학생으로 보아서 관객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57) 앞서 기성 연극계에서 교육 혹은 청소년 문제를 극화하여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던, 동량청소년극단의 <방황하는 별들>(1985)이 있었다. 작품을 창작한 극작가 윤대성의 청소년 연극 젠더인식에 천착해 연구했던 김태희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이 극은 청소년문제에 대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며 불량 청소년에 대한 계몽이 아니라 어른들의 자각을 이끈다는 점에서 변별되었다. 그러나 중산층 청소년을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정의 화목과 청소년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국한시킨다는 점, 청소년들에 대한 제한된 인식이 극에서 전면화 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김태희, 「윤대성의 청소년극에 나타나는 젠더문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참조)

58) <최선생>, 2면.(아르코예술기록원 소제)  
 <최선생>은 극단 연우무대(공동창작, 김석만 연출)에 의해 1990.9.15.-1990.10.21. 연우무대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최선생      안녕하세요.(관객 반응)  
 오늘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  
 지요? 누가 말해 볼까? (최선생은 관객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요 토요일하면 .....이 생각나지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볼까? ..... 그래요. 토요일하면 또  
 .....도 생각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해요.

최선생은 “즐거운 삼총사”의 노랫말과 율동의 동작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칠판에 붙인다. 최선생은 노래와 함께 율동을 가르쳐 준다.<sup>59)</sup>

경미      사회 시간에 뉴스를 가지고 조별로 토론하고 나서 글쓰기  
 를 한거예요.  
 유교장      뉴스를 가지도 토론을 시켰단 말이지.  
 경미      네  
 유교장      아침마다 “도깨비 뺨스”, “돼지 부랄” 이런 노래 부른다면  
 서. 응 사실이나?  
 아이들      (고개 끄덕끄덕)  
 유교장      “진달래 꽃 파는 처녀” 이런 노래도 불렀지?  
 아이들      .....  
 황주임      너희들, 진달래꽃이 어느 나라 아니 어디 국환지 아니?  
 (사이) 그제 이북 공산당 국화야. 셋별 초등학교 소식; 이  
 셋별 초등학교도 어디 있는 학공지 알기나 해?<sup>60)</sup>

최종순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긴장이 이어지던  
 시기에 기사화되었다. 1989년 5월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종순 교사를

59) <최선생>, 4면.  
 60) <최선생>, 35면.

“천방지축조”로 명명하고, 최종순 교사의 담임직 해제를 “젊은 여교사”로 인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사건화한다. MBC는 교사가 “어떤 고상하고 진취적인 그런 것”을 교육하지 않고 노조운동·방북으로 대표되는 통일운동·대통령 비판 등의 “특정목적”의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왜곡 보도했다.<sup>61)</sup> 이 보도를 둘러싸고 문공부 정책질의회에서 여야 의원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sup>62)</sup> 최종순 교사는 방송 전 담임 자리를 박탈당했고, 같은 해 6월 5일 직위해제 당하면서 해직교사가 된다. 최종순 교사가 해임당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극 <최선생>은 사건고발극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현실의 교실을 보여주기” 위해 “표현적 조명”을 배제한 것, 최종순 교사의 교육내용에서 불온한 것으로 해석된 지점들의 오류를 사실관계 속에 지적한 것은 연극의 목적을 명시한다. 극단 연우무대의 <최선생>은 같은 해 서울연극제 출품을 거절당하며, 1992년 부산의 현직 교사들은 워크숍으로 동일 작품을 공연하고자 하였을 때 부산시교육청의 강한 제재를 받았다.<sup>63)</sup> 기본적인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영역을 불온 생산체제로 의미화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연극 <최선생>은 율동과 노래·옛이야기 새로 쓰기 등 학생의 참여와 활기를 도모하는 최교사의 새로운 수업 방식을 재연한다.<sup>64)</sup> 교육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회의가 교과별 교육방법론을 연구 모임의 활성화와 같은 집단적인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연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에 의해 불온하고 천방지축한 것으로 판정되었던 최종순 교사의 수업 사례는 ‘전교조 교사의 새로운 수업 방식

61) <도봉구 신방학국민학교 최종순 교사의 특수 교육 방식 고발>, 《뉴스테스크》, MBC, 1989.05.14. (확인일시: 2023.09.13.)

[https://imnews.imbc.com/replay/1989/nwdesk/article/1822132\\_30389.html](https://imnews.imbc.com/replay/1989/nwdesk/article/1822132_30389.html)

62) 「최종순 교사」 MBC보도 싸고 공방, 『한겨레』, 1989.05.19.

63) 「현직교사 연극공연 막아」, 『한겨레』, 1992.9.19.

64) 최종순교사탄압대책위, 『교사 최종순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계절, 1989.

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최선생>에도 삽입된 바, 당시 학교에 유포되었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생활한복탈춤 민요·연극 등의 당대 민중문화 ‘운동’이 공유하던 대항문화를 학교에 도입한 교사라는 표층적인 것에서부터 “교무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는 교사”라는 가시적인 저항성뿐 아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거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사상을 불온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역설적인 조항이 들어 있었다.<sup>65)</sup> 연극 <최선생>에서도 재연된 새로운 수업 방식은 ‘강제적인 혹은 ‘과도한 숙제와 학업 부담 그리고 주입식 교육에 관한 교사의 자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풍금 노래와 율동과 놀이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거나, 조별 토론과 자율적 글 쓰기 방식을 활용하는 소통적인 교육 방식은 연극 내에서 “관객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끄는” 극적인 전략으로 전유되기도 했다.

이영미는 연극 <최선생>에 대한 평에서 한 해 지나 “전교조 사건의 흥분”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전교조연극이 내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6)</sup> 내용적으로 참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교조 조직사업과 그 향방, 과거 교육운동사”가 기능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연극”이 분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구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해직일지(아저씨, 어 선새임예)>(1993)와<sup>67)</sup> 교사극단 징검다리의 <김선생님 뭐하세요>(1995)는 이와 같은 전교조 사건 이후의 시간성을 반영한 텍스트이다. 두 텍스트는 변혁기의 일원화된 연대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신념이 이후의 지속되는 투쟁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성이 출현하는 가운데 ‘참교육’에 대한 의지가 굴절되거나 갈등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

6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 앞의 책, 61면.

66) 이영미, 앞의 글.

67) 김재석 최재우 엮음, 『대구지역 민족극 선집-이 땅은 니강내강』(태학사, 1996) 수록본.

앞서 1989년 공연된 일련의 교육운동극과 <단한 교문을 열며>, 그리고 <최선생>에 이르기까지의 극이 전교조 교사의 해직 직전까지의 상황과 이상적인 교사상을 그리는 형태였다면, <해직일지>는 해직과 해직 투쟁기의 상황을 그린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김교사는 형사에게 끌려가 전교조 탈퇴를 중용받지만 거절하고, 결국 제주 43을 ‘항쟁’이라 가르친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연행된다. <해직일지>가 창작되고 공연된 시기는 1989년 전교조가 해직당하고 1994년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간으로, 자료조사와 창작에 이르기까지 해직 교사들의 실질적인 생활상과 갈등을 담아내고 있다.

해설자      세월은 때로는 상처를 아물게하는 고마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를 망각의 늪이라는 몹쓸 곳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생계의 방편으로 족발집을 내신 분, 학원강사로 나가시는 분, 또 떴이서 식당을 내신 분, 그러나 교사에게 제일 즐거운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날 이후 거리로 나오신 아저씨 아줌마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소리          참교육 3년, 해직 3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시 5공으로 돌아갔고 탈퇴서의 울가미에 걸려 교육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온갖 모순들을 쓰라린 가슴으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현장 선생님들, 우리 현장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해직일지>는 생활극·서사적 장치·다큐멘터리적 요소 등을 활용해 해직 이후의 시간성을 ‘변혁기의 형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극과 심화된 성찰성의 형식으로 이끈다. 해직 이후 개별 행위자로서 교사

의 직업 바깥의 삶, 생활극적 재현의 방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다른 노동  
을 하고, 현장에 남은 교사와 해직교사 사이의 관계를 저울질하기도 하는  
모습을 그려 해직된 교사들을 정의와 신념의 주체로만 그리지 않고 그들  
의 상처와 모순된 감정들을 담아낸다. 또 극에서 서사적 장치는 ‘인사발  
령통지서’의 차가운 언어를 다큐멘터리적으로 삽입하여 고발극으로서 성  
격을 강화하거나 관중에게 말걸기를 통해 서사적 거리를 좁히는데 사용  
한다. 여전히, 혹은 “5공때부터” 돌아간 듯한 줄 세우는 성적우선주의와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육현장에서의 평등과 자율의 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교육운동기의 이상과 멀어져 있다.

<해직일지> 극 창작을 위한 해직교사 모임과의 만남에서 교사집단에  
서 확인 되었던 무기력과 환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직경험을  
해직교사의 기억 연구를 통해 밝힌 손준중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sup>68)</sup> 손준중은 정부나 전교조의 표준화된 기록과 교사들의 기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해직교사에게 해직의 경험은 성  
공이 아니라 희생으로 기억된다. 해직 사유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명령 불복종, 품위 손상, 학습지도 부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지만 징계절차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손준중은 해직은 “감정적으  
로 상당한 내적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 것이었으며, 가족을 동반한 협박  
이나 여성 교사에게 가해진 이중적 모욕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빨갱이’  
라는 오명을 쓰게 된 문화적 트라우마가 강력한 것임을 밝혔다. 해직 기  
간은 <해직일지>에 그려진 것처럼, 연대의 장면과 신념의 추동으로 넘어  
간 부분도 있었지만, 해직교사에게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위기가 되었다.

학기            누가 알아줘? 자네는 왜 교육방송으로 튀냐? 그래도 요즘  
                  은 시세가 있지. 지존과가 날뛰니까. 나만 나타나면 인간

68) 손준중,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경험에 관한 기억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 28권 1호, 2018, 66면.

성 교육이 어떻고 떠든다고.

기석      아이구, 오해 마세요. 선생질이 싫다기 보다 교육제도에  
정나미 떨어져서 결심한 거니까. 이젠 뭐 창의적인 수업  
한 번 할 수 있나. 잡부금이나 걷고... 너무 교과내용이 많  
으니까 진도 나가기 바쁘고 차라리 학원 선생이 진짜 선  
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시간에는 철저히  
공부에 열을 쏟고... 수업 받는 학생들은 개길 생각 안하  
고... 똑같은 아이들이 인간 만든다는 학교에서 더 개판이  
구. 요즘 일 이등 하는 애들 봐요. 학교는 침실이잖아요.  
출석이 내신에 걸리니까 온다는 태도 아네요?

학기      그게 그 말이네. 자부심으로 선생질한다는 사람은 사라졌  
네.<sup>69)</sup>

그리고 1995년 결성한 서울 지역 교사 극단 징검다리의 <김선생님, 지  
금 뭐하세요>(1995)는 변하지 않은 교육 현실 속에 한 교사의 녹록치 않  
은 삶을 다룬다.<sup>70)</sup> 즉 <해직일지>와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는 교육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난 이후, 여전한 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운동 이후 갈라진 삶의 길들 혹은 참교육을 지속한다  
는 것의 의미를 더 이상 확정하기 어려운 시기의 머뭇거림과 환멸을 담  
아내는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조직적인 차원 혹은 집단적 정동의 차원  
에서 세워졌던 참교육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운동 이후의 시간 속에서  
학생과의 관계 혹은 교사 집단 내의 입장 차에 따라 다층적인 분열과 갈  
등 속에 굴절되는지를 확인시킨다. 즉 당시의 교육 현장은 교사의 진심을  
외면하는 학생, 공문처리 과정의 비효율성과 참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69) <김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엄인희 작품 모음 1-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 북스  
토리, 2002, 215면.

70)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는 1995년 2월 15-21일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되  
었으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대본은 엄인희 작품집인 위의 책에 수록된 대본이다.

여전한 교육 현장의 구조, 그리고 “EBS행”으로 상징화된, ‘교사’라는 직업에 부여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처우에 대한 자괴감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이 극에서도 여전히 특별활동 사진반은 “저는요,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도 집을 많이 지어서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227면)와 같은 “올바른 사람”(226면)이 되는 꿈을 꾸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교사극단 징검다리는 교사와 학생이 볼 수 있는 연극을 하고자 1993년 극단을 창단하였으며, 안양문화운동연합 큰힘에서 극작을 맡았던 엄인희가 연출을 맡았다. 이처럼 “선생이란 직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꼬리를 무는 대답”으로서 극은,<sup>71)</sup> 머뭇거리며 떠나는 교사와 회한 속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교사, 다시 일어서는 교사들<sup>72)</sup> 형상화한다.

이처럼 교육운동의 질문은 교사의 교육 환경과 학생의 주체화에 대한 질문이라는 개별 행위자의 인권의 문제에서부터 산업적 근대화 프로젝트와 능력주의라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수정의 촉구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전교조 결성과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치안 통제를 받게 된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간적 단위에 이루어진 교육운동은 변혁적 민중운동과 인적 구성, 인식적이고 문화적인 틀의 차원에서 같은 장 위에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운동의 조직화와 수행과정에서의 민주적 합의, 노선의 결정에서는 균열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다.

1995년의 시점에서 <김선생님 뭐하세요>에서 드러난 교육 공간의 황폐화는 구조적 모순을 뚫고 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직시하게 함과 동시에 교육 행위자들의 다양한 욕망에 대한 자기-상호 검토가 본격화되어야 했

71) 엄인희, 「연출을 하면서」,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교사극단 징검다리) 공연 팸플릿, 1995.2.15.-21.(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aarts.or.kr/viewer/document/1059602>)(확인 일시: 2023.11.06.)  
72) 「작품해설」, 위의 팸플릿.

음을 환기한다. 정치적 불온 시비와 공안 사건화가 표면적으로 끝난 시대에 근대적인 교육을 둘러싼 허구적 이데올로기교육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대중화되고 본격화되어야 했다.

1990년대 초, 전교조 교사 해직과 해직 투쟁으로 이어지는 다른 운동의 조건 속에서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미분시킨 근대적 비인간화 과정에 대한 혁명의 구체적인 꿈은 급격히 ‘현실’로 명명된 자리로 돌아간다. 극중 교사들의 머뭇거리고 환멸의 정동은 한국사회가 4.19 이후 대중봉기와 투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성찰의 경험’을 만들기보다 간헐적 전개 양상을 보임으로써 “혁명의 에너지와 배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한 분석을 상기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혁명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쉽게 역전이 되었다.<sup>73)</sup> 앞서 밝힌 해직교사의 해직 경험에 대한 기억 투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문별 운동을 ‘기념’하는 문화적 양식 자체를 창안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투쟁과 봉기에 얽혀 떠올랐던 질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했고 여전히 요청되는 것은 아닐까?<sup>74)</sup> 그런 점에서 <김선생님, 뭐하세요>에서 변혁기 이후에 여전히 교육환경과 일반화되어 있는 편견 속에 중층적으로 응고되어 있었던 강고한 능력주의의 심급과 무기력한 학생들 앞에서 주인공인 김선생님이 겪었던 좌절과 고립, 그럼에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노동에 대한 여전히 질문이 암시하는 학력 차별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던 직업에의 차별을 벗어난 평등에의 요구, 학생의 개별 인권과 역량을 존중하며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된다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73) 편집위원회(심광현 대표집필),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 『문화과학』 제 62집, 문화과학사, 2010, 25면.

74) 손준중이 해직교사에 대한 기억 연구를 통해 밝혔듯, 조직운동에서 구성원 내부의 관심과 조직의 이해는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 운동은 전교협 활동 당시부터 정치적 투쟁과 교육적 투쟁 사이에서 당파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변혁기에 잠재되어 있지만 가시화되지 못했던, 노선 간 갈등·조직의 결정과 개인 행위자 간의 시각차와 업무 분담 및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의 몫 등에 대한 기억 투쟁 또한 주요한 논점이 된다.

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육 주체의 잔여적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5. 교육운동극의 정치가 의미하는 것

이 글은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의 교육운동과 맞물려 창작된 극들을 통시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변혁기의 문화적 형식과 이 시기 떠오른 교육에 대한 질문을 추적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경쟁식 교육환경 속에서 연달아 일어났던 학생들의 자살에 관한 깊은 정서적 동요와 진정한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질문들은 한국 사회의 변혁기와 맞물려 1989년 전교조 결성이라는 굴곡점을 만들어냈다. 교사운동으로 부각되었지만 기실이 흐름은 민중운동의 흐름과 접합되어 있었고,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의 연대와 대중적인 호응 속에 떠올랐다. 앞서 살펴본 교육운동극은 지식인 및 (대)학생운동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과 접합되어 있었던 맥락 위에서 출현했다.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하여 교육민주화운동의 집회성·민중민족문화운동의 맥락 속에 창작출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7.12)가,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하는 대중의 자각·청소년 관객층의 관객성·도시 중산층의 문화의 맥락 속 동명의 영화(1989)가 창작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1989), <마지막 수업>(1989), <선생님 힘내세요>(1989)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이르는 변혁운동기, 교육 현실을 바꾸는 주체로서 교사의 행위자성·교육하기라는 노동의 조건에 대한 성찰·실제 교육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체들의 미숙성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혼란들 그리고 교육 현장이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가에 대한 대안적 성찰과 질문이 구체화 된다. <해직일지>(1992)는 해직 이후의 시간성을 변혁기의 형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극과 심화된 성찰성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김선생님, 지금 뭐하세요>(1995)는 교육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난 이후, 여전한 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운동 이후 갈라진 삶의 길들 혹은 참교육을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이상 확정하기 어려운 시기의 머뭇거림과 환멸을 담아냈다.

<마지막 수업>의 진교사가 말하였듯, 변혁기 교육운동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큰 소리 한 번 쳐 본”, “소리만 질러대는”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기 교육운동극에는 “아 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교육적이라는 이름 아래 계도적인 시선과 폭력으로 다스리기거나 단순하게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 개입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또 교육 현장의 문제가 단지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불온의 사상체제로 가능한 질문들을 굴절시키고, 강력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되던 “우리가 사는 세상(<마지막 수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 교사들의 노조 운동으로서의 집단 행동과 학생운동에서 파생된 반체제 민중운동의 문화적 기호들에 의해 정치적인 것이자 불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여러 교육운동극에서 제기된 ‘정치적인 것’은, 공교육에서 공유해야 할 교과와 내용과 교육의 방법·사회의 직업적이고 문화적인 위계·개인의 역량놀이와 공부의 본질·좋은 사회와 행복한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의 몫과 의견들의 질문과 조율 과정이라는 한국의 근대화 교육에 대한 질문과 모색에 있었다. 이 점은 30여 년이 지나 더욱 강고해진 ‘능력주의’ 교육환경과 여러 방식으로 출몰하는 교육 현장의 비극들에 대한 성찰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제석 최재우 엮음, 『대구지역 민족극 선집-이 땅은 니캉내캉』, 태학사, 1996.  
 민족극연구회 엮음, 『민족극대본선4: 제 1·2회 민족극한마당편』, 풀빛, 1991.  
 배봉기, 『배봉기희곡집-잔인한 계절』, 평민사, 1995.  
 엄인희, 『엄인희작품 모음 1-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 북스토리, 2002.  
 정치창·김사열 엮음, 『영남의 민족극: 1980-1989』, 우리, 1989.

<단한 교문을 열며> 심의대본 시나리오, 1992, 한국영상자료원 소장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선새엠요> VHS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오픈아카이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아르코예술기록원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 2. 단행본

- 김원·신병현·심성보·이황현아·이희랑,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 천권의책, 2008.  
 이희경, 『이반 일리치 강의』, 북투브, 20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엮음,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 풀빛, 19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 『다시 단한 교문을 열며』, 양철북,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사공사, 2006.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에바 일루즈·에드바르 카바나스, 이세진 옮김, 『해피 크라시』, 청미, 2021.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얼 윌러스틴, 김상운 옮김, 『인종, 국민, 계급-모호한 정체성들』, 두번째테제, 2022.  
 이반 일리치, 노승영 옮김,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 2015.  
 이반 일리치, 안희곤 옮김, 『학교 없는 사회』, 사월의책, 2023.  
 최종순교사탄압대책위, 『교사 최종순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계절, 1989.

### 3. 논문 및 기타

- 김민채·김영환, 「Ivan Illich의 핵심사상에 기반한 중등 진로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7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 김태희, 「윤대성의 청소년극에 나타나는 젠더문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 손준중,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경험에 관한 기억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제28권 1호, 2018.
- 양돌규,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0집, 민족문학사학회, 2020.
- 이영미, 「참교육의 그날 까지—연우무대, <최선생> 공연평」,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엮음, 『민족예술』 제4호.
- 이철호, 「불온과 통치, 그 오염된 기술: 임유경, 『불온의 시대—1960년대 한국의 문학과 정치』(소명출판, 2017)」, 『상허학보』 제51집, 상허학회, 2017.
- 전누리,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 『기억과전망』, 한국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연구소, 2019.
- 정재철, 「교육운동과 연극운동-89년 하반기 교육문제극들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67호, 창작과비평사, 1990 봄.
- 황병주, 「개별연대와 능력주의」,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2022 가을.

## Abstract

Democratic Education, Cham-gyo-yug and Happiness  
 -Education democracy movement and education activism theatre  
 in the 1980s and early 1990s

Park Sangeun

This article seeks to trace the cultural forms of the transformative period and the questions about education that emerged during this time by examining the plays produced in response to the educ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mid-to-late 1980s. In the mid-1980s, a series of student suicides in a compet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coupled with deep emotional agitation and questions about what constitutes true "education," coincided with a period of transformation in Korean society, culmin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 1989.

As we have seen, a series of educational activist theatres emerged in response to the cultural movements of Korea during the Trans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rallying nature of the education democratisation movement and the folk national cultural movement in relation to a series of student suicides, the creative dance version <Happiness is not in Grading Order> (December 1987) was created, and the film of the same name (1989) was created in the context of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educational problems, the audience of the youth audience, and the culture of the urban middle class. In <Sunsae Imyo> (1989), <Last Class> (1989), and <Good Luck Teacher> (1989),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from the June 1987 uprising to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Teachers' Union in 1989, the agency of teachers as agents who change the reality of education, reflections on the labour conditions of teaching, conflicts and confusions created by the immaturity of the agents encountered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and alternative

reflections and questions about what is the educational field as a place of learning and teaching are embodied. <Dismissal Diary (1992)> captures the temporality of the post-dismissal period in the form of an accusatory drama and in-depth reflection, rather than in the form of a 'transformation period', and <Teacher Kim, What Are You Doing Now (1995)> shows the reality of the school after the aspir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reform have faded, while at the same time capturing the hesitation and disillusionment of a time when it is no longer possible to confirm the divergent paths of life after the movement or the meaning of continuing true education.

The collective action of the teachers' union movement and the cultural symbols of the dissident folk movement derived from the student movement during this period were judged to be political and disturbing. However, the 'political' that was raised in the various educational movement plays was the questioning and exploration of the modernisation of education in Korea: the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 that should be shared in public education, the professional and cultural hierarchy outside of school, individual competence, the nature of play and study, and the process of questioning and reconciling the shares and opinions in the social consensus on a good society and a happy life.

Key words: 1980s education democracy movement, Cham-gyo-yug, Discontent,, Education movement drama, Labour, Meritocracy, Minjog-geug movement

접 수 일: 2023년 11월 8일

심사기간: 2023년 11월 16일~2023년 11월 26일

게재결정: 2023년 12월 9일